

사설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최첨단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아비규환 속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엄청난 생활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편리함과 안온함을 앞질러 가는 고통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기타 개개인과 각각의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 씨줄 날줄로 얽혀서 살바싸움 하나라 난리법석들이다. 왜 그럴까. 자기만 잘났고 남들은 못났다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자신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와야 한다고, 자신만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만 되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질척거리는 늪 속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글귀가 있다. 누구나 익히 들어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집에 꼭 한 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소란스럽게 살아가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온몸과 마음을 찢듯 거리게 하는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이 글귀가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었으면 한다. 영국 웨스턴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이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거의 자기 위주의 일방통행식이다.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좇아 주기만 바랄 뿐이다. 토론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TV토론만 봐도 그렇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기주장만 하다가 퇴장한다.

다른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든지, 토론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다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을 보질 못했다. 몇 때문에 했는지도 모를 정도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각자 상대방 생체기내기에만 계곡품을 물고 있다. 갖은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만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세상을 다 살아갈 즈음, 묘비명의 주인공처럼 결국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로 삶의 질만 떨어지는 생을 살다가 말이다. 오호 통재라. 애재라.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충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화가인 이하곤은 정7품직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고향인 충북 진천에 내려가 학문과 서화에 힘썼는데, 특히 책을 매우 사랑하여 어떤 책이 하나 나오면 옷을 벗어 주고라도 그걸 사들여 수집한 장서(藏書)가 1만 권을 헤아렸다고 한다. 성격이 곧아 아첨하기 싫어하고, 여행을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여행하였으며, 불교에도 관심을 두어 각 사찰과 암자를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하곤은 여섯 살 난 딸을 마마로 잃고 이렇게 울부짖었다. "물가에 가도 내가 떠오르고, 솔바람 소리를 들어도 내가 떠오르고, 달밤에 작은 배를 보아도 내가 떠오르니...이 아픔 어디에 끝이 있을까?"

여류소설가 박완서(대표 작품:『도시의 흥년』,『휘청거리는 오후』)는 남편을 잃은 지 석 달 만에 외아들을 떠나보냈다. 평문대 졸업반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던 아이였다. 그녀는 '청동기처럼 단단하고, 앞날이 촉망되던 젊은 의사 아들'을 잃고, 신에게 한 말씀만 해보라며 따지고 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내가 없더니 그게 정말이나.....하느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

철학자와 자녀(8)-자녀 잃은 슬픔(박완서, 공자 외)

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특히 대를 이어 외동이의 죽음은 '상명(喪命)'이라 일컬었다. 눈앞 광명이 캄캄하게 꺼져버린, 빛을 잃고 희망을 앗긴 그런 상태를 말한다. 공자의 제자로 공문 10철(孔門十哲, 공자의 뛰어난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자하(子夏)는 아들이 죽자, 밥맛을 잃다 상심해 실제로 눈이 멀었다고 한다.

공자 역시 살아생전 아들을 잃은 아픔을 당했다. 공자의 아들 백어(伯魚, =공리는 나이 50이 되어서야 아들 자사(子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思, 공자의 손자)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자사가 태어나던 해에 백어가 죽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버지인 공자보다 먼저 죽었는데, 이때 공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의 일화에서, 부자(父子)간의 관계를 조금은 유추해볼 수 있겠다. 하루는 공자의 문하생인 진항(陳亢)이 공자의 아들 백어(伯魚)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그 대에게만은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과는 다른, 무슨 특별한 것을 들려주시지요?"

이에 백어가 대답하기를 "어태까지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내가 황급히 뜰을 가로지르려 하자, 아버지가 나를 불러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시경』(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일종의 시집)을 읽었느냐?' 그래서 내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시경』을 배우지 않은 인간은 말상대가 안 된다'고 나무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시경』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느 날 내가 황급히 뜰을 건너가려 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세우고는 '예(禮)를 배웠느냐?' 하시기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예를 배우지 않은 인간은 사회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도 예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진항은 이 대화를 통해 『시경』과 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스승과 아들의 관계가 그리 친근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특별히 아끼지도 챙기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들, 그를 잃었을 때 과연 공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은 공자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 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

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음력 8월 29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한국도로공사' and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